

http://dx.doi.org/10.17703/JCCT.2021.7.4.67

JCCT 2021-11-10

## 장애인평생교육‘의’, ‘을 위한’, ‘으로부터’ 내부 토대: 발달장애(developmental disabilities)-학교(schools) 융합

### Internal Foundation on the 'of', 'for', 'from'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Convergence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Schools

김영준\*, 김화수\*\*, 권랑희\*\*\*

Young-Jun Kim\*, Wha-Soo Kim\*\*, Ryang-Hee Kwon\*\*\*

**요약** 본 연구는 장애인평생교육의 내부 토대를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한 내용 의미의 구성 체계에 대해 장애인평생교육을 기준으로 주체를 의미하는 ‘의(of)’, 목적을 의미하는 ‘을 위한(for)’, 실천적 주요 기반을 의미하는 ‘으로부터(from)’와 같이 세 가지 요소로 분류 구성하였다. 연구 방법은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의 내부 토대를 형성하기 위해 학문적 근거나 실천적 적용 모델 및 방안을 논의하거나 실제화한 선행연구를 통한 문헌분석이 일차적으로 고려되었으며, 이차적으로는 문헌분석의 근거를 기초로 하여 연구 내용의 구체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가 회의를 실시하였다. 연구 내용은 장애인평생교육의 내부 토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주제, 목적, 실천적 주요 기반을 종합하여 발달장애 토대화와 학교 토대화와 같이 크게 두 가지로 제시되었다. 위 두 가지 토대 요인에 의하여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의 내부적 보편성을 일차적으로 확립하고, 연계적으로 감각장애 유형 및 일반평생교육 분야와 융합하는 측면이 반영되었다. 연구 결과,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 전반의 장기적 안정성 측면이 분석되었다.

**주요어** : 장애인평생교육, 내부 토대, 발달장애, 학교, 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internal foundation of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The composition system of the meaning of contents for this purpose is divided into three elements: 'of' which means subject based on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for' which means purpose, and 'from' which means practical main base. The research method was to discuss the academic basis, practical application model and plan, or to analyze the literature through the previous studies that were actualized in order to form the internal foundation of the support system for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Second, the expert meeting was conducted to improve the specificity of the research contents based on the basis of the literature analysis. The contents of this study are presented in two main ways: the foundation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 foundation of schools by synthesizing the main bases of subjects, purposes, and practical base required to form the internal foundation of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The above two factors first establish the internal universality of the support system for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and in connection with the types of sensory disabilities and the general lifelong education. As a result, the long-term stability of the overall support system for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was analyzed.

**Key words** :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Internal Foundation, Developmental Disabilities, Schools, Convergence

\*정회원, 덕성여자대학교 비교과통합관리센터 연구원 (제1저자) Received: August 20, 2021 / Revised: August 30, 2021

\*\*정회원, 대구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교수 (교신저자)

Accepted: September 10, 2021

\*\*\*정회원,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공동저자)

\*Corresponding Author: helperman20@hanmail.net

접수일: 2021년 8월 20일, 수정완료일: 2021년 8월 30일

Center for Extracurricular Activities, Duksung Women's Univ., Korea

게재확정일: 2021년 9월 10일

Dept. of Speech Language Pathology, Daegu Univ., Korea  
Dept. of Social Welfare, Busan Digital Univ., Korea

## 1. 서론

장애인평생교육의 특수성은 무엇인가? 위 특수성을 정립함에 있어 여러 유관 분야가 융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그 여하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의 특수성 결과는 현저히 달라진다 [1]. 현행의 장애인평생교육 동향을 상기해 보면,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와 기회 보장을 위해 지역별로 평생교육센터 설치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장애인 평생교육법(가칭)」의 제정도 예정을 앞두고 있는 실정이다 [2]. 분명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의 안정화를 위해 고무적인 일이지만, 장애인평생교육이 성인기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다 장기화되고 맞춤형의 수준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본질적 성격과 맥락을 의미하는 토대(foundation)를 문제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의 「평생교육법」을 비롯해 학문적이고 일선 현장 차원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의 정의는 “학교 정규교육과정 이외”라는 문구 명시와 맥락에서 이해되고 있다 [3]. 실제로, 장애인평생교육 분야는 특수교육 분야와 달리 학령기 의무교육 체제가 아닌 개별 수요에 의한 선택형 체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장애인별로 교육 격차와 불균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참여하는 평생교육과정 및 교육프로그램의 내용과 성과도 다양성의 범위가 매우 높다 [4]. 이런 현상으로 인해, 현행의 사회적 상황에 있어서는 많은 장애인들을 위해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관 및 시설을 활발히 설치하려는 동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와 연계된 전문인력의 양성이나 유관기관 간 협력체제 구축,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다양성 등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하지만, 또 다른 한 편으로는 현행의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 구축에 대한 노력이 하드웨어적 수준으로 이해되는 제한점을 띠기도 한다. 왜냐하면, 장애인평생교육은 해당 목적과 취지에 따라 다양한 기능적 의미로 통용될 수 있지만, 성인기 장애인이 전체 성인생활 동안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원체제로 실제화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5, 6]. 그리고 장애인이 성인기 생애 전체 평생교육의 기회를 보장받겠다고 할지라도 성취 가능한 결과가 불명확한 부분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현행의 관련 사회적 상황이 물리적 차원의 노력에 편중되어 있다는 인식이 따르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상의 물리적인 차원의 한계점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전환하여 활용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노력은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가?

현행의 장애인평생교육 분야의 동향은 성인기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크게 인식한 것으로 나타난다 [7, 8]. 단, 위 필요성과 중요성을 실제화하기 위해 성인기 장애인의 입장에서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를 어떻게 구조화하여 적용 모델과 방안을 마련하는가의 사안은 아직까지 크게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단적인 예로,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등이 새롭게 설치되고 기존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재구조화된 활용 차원을 다양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를 구조화하는 조직적 업무 성격과 기능을 비롯하여 교육과정, 전문인력 자격 등이 중복되어 기존의 인프라와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9-11]. 이는 세부적으로 여러 요인을 들어 융합적으로 사정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하나, 주요 요인은 장애인평생교육의 이론적 성격과 맥락을 결정지어 일반평생교육 분야와 어떻게 상호간 보편성과 특수성을 유지할 것인가이다 [12].

일반적으로, 장애인평생교육의 특수성은 일차적으로 장애(disabilities)란 요인에 근거하며, 위 요인에 의거하여 그 토대가 형성된다. 즉, 장애인평생교육의 학습자가 평생교육과 관련된 지식 및 기술을 함양하는 데 있어 긴밀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장애에 해당하며, 장애의 요인은 개인의 범주에서 뿐 아니라 사회 제도적인 범주에서 역시 밀접한 상관성을 갖는다 [11]. 단적인 예로, 장애 유형을 어느 유형에 주요 토대를 두는가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 분야가 일반평생교육 분야와 유사하고 통합교육의 차원에서 적용 가능할 수 있다 [1][5-7][12, 13]. 그리고 장애와 관련된 부분적인 수행역량을 함양하면 장애인평생교육 분야에 전문인력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여러 분야의 이해관계와 충돌 문제 등이 초래될 수 있다 [14]. 또한, 장애와 밀접하게 호응되는 사회적 상황이나 제도 기반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문제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장애인평생교육의 결과 및 기대효과를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추구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질 수 있다 [15, 16].

본 연구는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평생교육의 주요 요인이 되는 장애를 중심으로, 장애인평생교육의 내부 토대를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 내용은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의 안정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여겨진다.

## II.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한 주요 내용은 장애인평생교육 분야의 내부 토대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가 연구 내용을 그림 1과 같이 “장애인평생교육 ‘의’, ‘을 위한’, ‘으로부터’와 같은 맥락으로 구성하였는데, 이는 장애인평생교육의 토대가 장애인평생교육 내부에서 보편적이고 안정적 수준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의도하기 위한 상징적 의미를 제고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평생교육‘의’?”의 물음에 대한 해답, “장애인평생교육‘을 위한’?”의 물음에 대한 해답, “장애인평생교육‘으로부터’?”의 물음에 대한 해답을 합리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학문적 이론의 수준에서나 실천적 차원에서 역시 장애인평생교육 분야의 토대가 근원적으로 구축될 때 교육대상, 교육과정, 유관기관, 자격 등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구성요소가 안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3][5-7][11].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본질적으로 토대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고찰하는 부분을 주요 내용으로 반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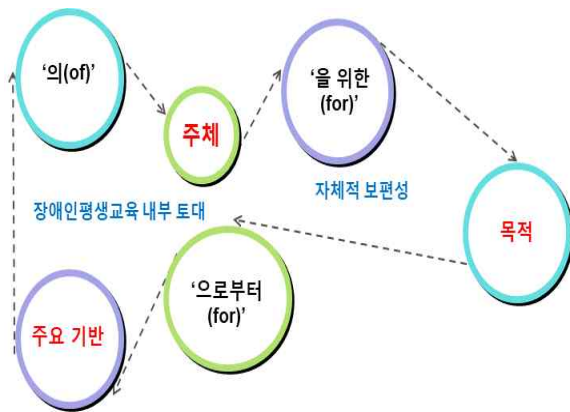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주제의 의미 체계도  
 Figure 1. Semantic system diagram of research subject

이상의 취지에 따라 일차적으로 관련 선행 연구문헌 ([1, 2][3-5][8-10][12] 등)을 수집 및 분석하여 장애인평생교육의 토대와 관련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장애인평생교육 실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조망하는 차원에서 관련 수요 및 실태 조사를 전개한 연구는 많았으나 [13], 장애인평생교육의 토대에 직접적으로 기인되는 근거와 적용 모델 및 방안을 제시한 선행연구는 일부 현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 분석에 의해 그 필요성이 논의된 장애인평생교육의

토대 형성 여부를 근거로 하여 이차적으로 전문가 회의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회의 시 집단 면담의 절차가 아닌 각 전문가가 협의하여 연구 내용에 대한 주요 결과를 공동으로 도식화하는 절차가 반영되었다.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는 장애인평생교육을 전공한 대학 교수요원 5명이며, 총 2개월(총 11회, 1회 당 50분 내외 토론)간 진행되었다.

전문가 회의 결과, 각 전문가들은 연결망의 로드맵 형태로 장애인평생교육의 토대를 형성해 나갔는데, 일차적인 근거는 ‘장애’에 중점을 두었다. 즉, 장애 요인을 중핵으로 하여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는 관련 요인들을 고려하였고, 그 다른 요인을 연구 결과 내용으로 고찰하였다. 이와 같이 고려된 관련 요인은 크게 ‘발달장애 (developmental disabilities)’와 ‘학교(schools)’로 분류 구성되었으며, 위 두 가지의 관련 요인을 융합할 때 장애인평생교육 내의 보편성과 정체성이 타당하게 정립될 수 있다는 측면이 분석되었다.

## III. 장애인평생교육 토대

본 연구는 장애인평생교육 분야가 일반평생교육 분야를 비롯하여 특수교육 등의 유관 분야와의 융합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갖추어야 할 보편성 차원의 전제 조건을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장애인평생교육 분야의 보편성 차원의 전제 조건은 ‘장애’를 중심으로 한 ‘발달장애’와 ‘학교’의 두 가지 관련 요인으로 반영되었다.

### 1. 발달장애 토대화

장애인평생교육‘의’ 관점에서나, 장애인평생교육‘을 위한’의 관점에서나, 장애인평생교육‘으로부터’의 관점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보편성은 장애인의 학습에 일차적인 영향을 미치는 ‘장애’이다 [1, 2][5-7]. 이러한 대범주의 장애를 크게 두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해 보면 ‘감각장애’와 ‘비감각장애’로 구성될 수 있다. 위 두 가지 유형 중 어느 유형에 중점을 두어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의 토대를 활성화시키는가에 따라 그 방향성의 여부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10]. 감각장애는 주로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등을 포함하며, 이와 관련된 학습자는 장애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체제를 보장받는 데 있어서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등과 같은 비감각장애 유형의 학습자와 수요나 성취 결과 등이 상대적으로 다를 수 있다 [11, 12]. 이에 따라, 각 장애 유형별 학습자의 경우 상호간에 접근하고 보장 받아야 할 조직 기관, 교육과정 운영, 전문인력 개입, 사후 연계교육 등의 성격과 맥락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장애인평생교육 내부의 보편적 전제조건을 위해 어떤 장애 유형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 이에 대한 해답은 모든 장애 유형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의 명분 속에서 무의미한 논의가 될 수 있으나, 장애인평생교육 내부적으로 그리고 일반평생교육, 특수교육 등과 같은 관련 유관 분야와 상호 함께 견주어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4-6][15, 16]. 만약,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의 감각장애 유형에 중점을 둘 경우 장애인평생교육의 내부 토대는 일반평생교육과 일정 부분 통합하여 교육과정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수 있는 측면이 제고될 수 있으며 [6], 또한 일반평생교육 분야의 교육과정 관련 지식 및 기술을 교수적 수정 및 지역 내 교육 시설·도구·재료 등의 인프라 협조 등에 따라 현행 학습 능력과 수준에 맞춰 습득할 수 있는 측면 역시 제고될 수 있다 [8-10][12]. 이에 반해,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비롯한 중복장애 등 비감각장애의 유형에 중점을 둔다면, 장애인평생교육의 내부 토대는 감각장애 유형에 비해 이상의 측면이 제고되는 정도가 적거나 수월하지 못할 수 있다 [2]. 실제로, 감각장애 유형과 비감각장애 유형을 분류하여 장애인평생교육과정의 내용 및 학습 성과를 상호 대비할 때에도 비감각장애 유형의 경우 주거생활을 비롯한 직업, 자기관리, 자기결정, 여가 및 사회생활 등에 대한 자립능력 요소가 더욱 강하게 요구되므로 일반평생교육 분야와 어떤 관점과 절차적 모델로 통합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못한 경향이 있다 [13]. 이상의 융합적 딜레마 현상을 해결하지 못하고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양적 다양성, 기관 설치 확대 등을 강화한다면, 장애인평생교육이 일반평생교육, 재활복지서비스 등의 유관 분야와 상호간 변별화된 특수성을 정립하는 것이 미흡해 진다 [2][10][13-15]. 결과적으로, 그림 1과 같은 장애인평생교육 분야의 내부 토대 흐름도가 제고되어야 한다.

장애인평생교육 분야의 내부 토대와 직결되는 전문성이 명확하거나 타당하지 못하게 되며, 평생교육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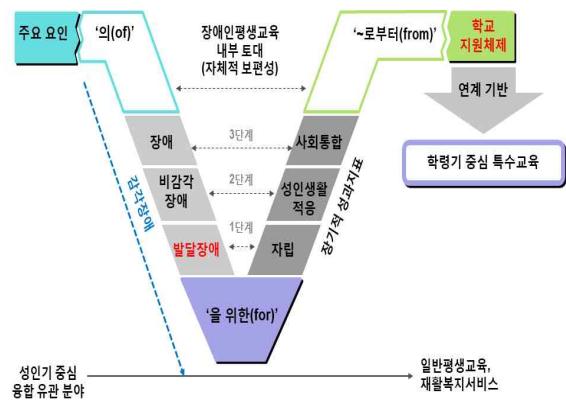


그림 2. 장애인평생교육 분야의 내부 토대 흐름도  
Figure 2. Flow schematics on the internal foundations of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내용과 방법을 포함한 전반적인 방안에 있어 다른 유관 분야에 해당하는 일반평생교육, 재활복지서비스와의 타당한 변별성의 근거가 제고되지 못하는 것이다 [16]. 단적인 예로, 현행의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사회적 상황 구도에 있어 이론 및 실천을 정립하려는 학문 분야 및 전문가 간 갈등이 초래되는 현상은 장애인평생교육의 자체적인 내부 토대 수준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장애 유형을 성찰하지 못하고,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학령기를 기점으로 한 성인기의 교육 단절 현상과 사회통합 미달성 문제 역시 민감하게 인식하지 못한 측면에 기인된다 [1, 2][5][7, 8][11]. 다시 말해, 학령기 중심의 특수교육이 성인기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의 관점과 맥락에서 어떻게 발전·응용되어야 하는가의 연계적 측면을 구체화된 적용 모델과 방안 수준에서 활발히 마련하지 못한 한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1][12][17].

비감각장애 유형의 발달장애를 가진 학습자를 위한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관련 적용방안을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논의하는 노력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평생교육의 내부 토대를 융합 유관 분야와 견주어 '발달장애', '학령기 중심 특수교육'을 보편성의 전제조건으로 탐색하고자 하는 학문적인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5][11, 12][14].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 개발이란 전반적인 구도를 놓고 '교육'과 '복지'의 관점을 논쟁하는 구도 역시 위와 관련된 노력이 충분히 학문적으로 탐색되고 보편화되지 못한 데 있다 [2]. 따라서 학령기 중심의 특수교육에 대한 이론 및 실체를 장애학생의 학교 졸업 후 성인기 전환 관점과 맥락에서 심화·응용할 수 있는 모델과 적용방안을

일차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곧 장애인평생교육의 내부 토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장애인평생교육의 내부 토대에 해당하는 보편성은 장애인평생교육 분야가 일반평생교육, 재활복지서비스 분야와 견주는 특수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그림 2와 같이 “장애인평생교육‘의?’에 대한 물음의 해답은 장애 요인에 따른 발달장애에 해당하며, “장애인평생교육‘을 위한?’과 관련된 물음의 해답은 자립, 성인생활적응, 사회통합에 해당한다. 이상의 해답은 비감각장애 유형의 발달장애 부분 뿐 아니라 크게 볼 때 감각장애 유형의 대상자에게도 속하지만, 그 적용 방향성이나 맥락이 비감각장애 유형에 비해 일반평생교육 분야나 재활복지서비스 분야를 보다 활발히 융합시킬 수 있는 성격이나 정도가 크다. 그러므로 그림 2와 같은 흐름도를 제고함으로써 장애 유형에 따른 분야 간 융합 모델 및 방안을 비롯한 방법론적 측면의 성격과 절차를 상대적으로 우선순위화하는 관점이 제고되어야 하며, 이런 관점의 제고는 곧 장애인평생교육 분야의 내부적 보편성의 토대를 타당화하는 측면으로 연결될 수 있다.

## 2. 학교 토대화

앞서 장애인평생교육의 내부 토대를 탐색함에 있어 장애인평생교육의 주체와 목적을 제시하였다. 이런 주체와 목적이 있다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기반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마련될 필요가 있다 [6]. 발달장애를 가진 학습자의 성인생활적응 및 자립에 따른 사회통합을 보장하기 위해 보편적인 차원에서 구체화되어야 할 주요 기반은 무엇일까? 이와 관련해, 장애인평생교육 분야의 동향을 보면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현행의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전국 및 지역 단위 별로 활발히 설치·운영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컨트롤 타워로 구축하거나 장애인복지관에 중점을 두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는 방안을 제기하고 있다 [3][5,6][11][14-16][17]. 이런 방안 역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확충될만한 사안이지만,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의 장기적 차원과 안정성, 학습자 개별 맞춤형에 따른 생애 주기별 교육 지원의 타당성 등을 제고해 본다면 좀 더 신중히 발전된 대안과 모델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4]. 이와 관련하여, 그림 3에 제시된 구성 체계도는 그 발전

된 대안과 모델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 학교 토대화 구축을 위한 거점 기관 정립 : 주요 과제



그림 3. 장애인평생교육 학교 토대화 관련 구성 체계도  
 Figure 3. Construction system of schools foundation for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기본적으로, 장애학생을 위한 학령기 특수교육 지원체제는 학교 중심이지만, 성인기에 진입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체제는 지역사회 중심의 성격과 제도적 기반을 가진다. 이에 따라, 성인기의 발달장애인은 학령기 동안 IEP 및 ITP 연계교육 차원에서 축적 관리해 온 특수교육의 종합 결과를 성인계속교육 형태로 연계하는 평생교육을 온전히 보장받는 데 어려움이 많다 [7][11, 12]. 또한, 그림 3의 구성 체계도에 제시된 바와 같이 발달장애인이 학교 졸업 후 성인기 전환에 이르러 성인생활을 지속하는 데 있어 자립과 사회통합이 불안정적인 상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학령기 특수교육의 종합 결과와 연계된 계속교육 형태의 평생교육 지원체제는 강조될 수밖에 없다 [13]. 이를 놓고 볼 때 현행의 장애인평생교육 분야 연구 동향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나 장애인복지관 등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교육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 등을 활발히 추진하는 대안이 본질적인 부분인지는 좀 더 신중한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제고해 볼 필요가 많은 것이다.

성인기에 놓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체제와 대한 주요 기반을 위해 현행 특수학교 등과 같은 정규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현실성이 제고되지 못한다. 이에,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학교를 실제로 설치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입장 보다는 토대를 학교의 성격과 맥락에 기반을 두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위한 근거와 대안을 실제로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 일환으로, 그림 3에서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학교 토대화가 위에서 크게 고찰한 두 가지의 한계적 상황에 기반하여 학령기 기본교육 과정과 연계하는 관점에서 장기적 평생교육의 교과 표준 등을 구성해야 한다는 관점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행의 장애인평생교육 유관기관이 학교 토대의 성격과 맥락으로 재구조화되어야 한다는 측면을 반영하였다. 단적인 예로, 그림 4와 같이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유관기관이 다양하게 현존하지만, 평생교육 교과 표준을 비롯한 콘텐츠 및 관련 인프라를 중심으로 통합 및 공유하는 모델과 절차를 통하여 학교 토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인평생교육 분야와 특수교육 분야의 융합 타당성을 탐구하고 그 적용 모델과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후속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1][3-5][13-15]. 이와 관련하여, 몇몇 선행 연구문헌([1][3-5][7-9][11-13][16, 17])에서는 구체적 근거와 모델 및 적용방안을 유사한 맥락에서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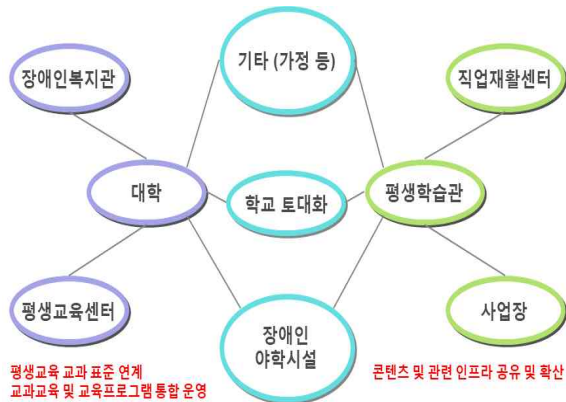


그림 4. 장애인평생교육 학교 토대화 관련 현행 유관기관 구성체계  
Figure 4. The system of the relevant institutions for the schools foundation of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단, 그림 3과 그림 4에서는 현행의 장애인평생교육 유관기관을 조직적 형태로든 교육과정적 기반으로든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측면을 제기하는 가운데 위 학교 토대화를 거점의 위치와 성격 아래 일차적이고 시범적으로 추진할 기관을 선정·지정하진 않았다.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 학교-지역사회 연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체제에 대한 정착 구조와 모델을 개발할 시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또 한편으로는 앞서 살펴본 그림 2, 그림 3,

그림 4의 측면에 대한 현행 장애인평생교육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이해도가 담보될 때 거점기관의 입장과 명분 역시 공정한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심화된 고찰은 중·장기형 과제로 조망하는 편이 수월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에서 논한 연구 내용은 일차적으로 비감각장애 유형의 발달장애인을 실질적인 주제로 삼았기 때문에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가 감각장애 유형의 학습자를 소외한다는 편견이나 오류적인 인식을 조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본 연구는 그림 5와 같이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에 있어서 감각장애 유형의 융합을 고려하였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평생교육 분야가 일반 평생교육 분야와 융합될 수 있는 토대의 기초를 형성하였다. 일반평생교육 분야에 대해 감각장애 유형의 학습자가 중점적으로 통합교육을 보장받을 수 있는 관점을 반영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교수적 수정 등의 학습설계 기반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18-20]. 그리고 발달장애를 일컫는 비감각장애 유형의 학습자 역시 개별 맞춤형의 관점에 의해 일반평생교육 분야로의 융합 절차를 반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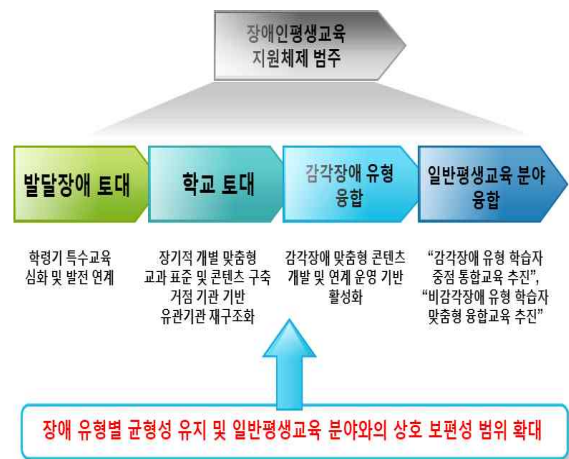


그림 5.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의 최종적인 토대  
Figure 5. The final foundation for supporting the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최종적으로, 그림 5에 반영된 측면은 장애인평생교육 분야가 감각장애 유형의 학습자를 간과하거나 일반 평생교육 분야와 분리된 관점(separate perspective)을 갖지 않는다고 하겠다. 궁극적으로, 그림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장애 유형별 균형성 유지 차원에서 장애인평생

교육 지원체제의 전반적인 토대를 형성하고, 아울러 일  
반평생교육 분야와 상호 견줄 때 공동으로 구축해야 할  
보편성의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는 이점을 토대에 역시  
반영하고자 한 것이다.

#### IV. 결 론

본 연구는 장애인평생교육의 내부 토대를 탐색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이를 위한 연구 내용의 체계를 장  
어인평생교육을 기준으로 한 ‘의(of)’, ‘를 위한(for)’, ‘으  
로부터(from)’와 같은 세 가지 요소에 의해 구체화하였  
다. 구체화한 연구 내용은 주체를 의미하는 ‘의(of)’에  
의해 목적을 의미하는 ‘를 위한(for)’은 기본적으로 자연  
스럽게 수반되며, 이 두 가지를 실제로 모델화하고 적  
용하기 위한 실천 기반을 의미하는 ‘으로부터(from)’ 역  
시 자연스럽게 수반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내용은  
발달장애 토대화와 학교 토대화와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 구성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 탐색한 ‘주체(of)’, ‘목적(for)’, ‘주요 기반  
(from)’은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 전반에 있어 여러  
영역 중 한 가지 영역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장  
어인평생교육 내부 토대 차원에서 고유 보편성을 결정  
짓는 차원을 포함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장애인평  
생교육 분야는 학문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자체적인 토  
대와 근거를 명확히 타당화하지 못하고, ‘교육’과 ‘복지’  
의 관점이 상호 혼합된 형태로 양적 팽창에 주력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경향성을 경계함을 통해 장애인평  
생교육 지원체제의 장기적 내실화와 안정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본 연구는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구성된 여러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후속적  
으로 활발히 모색하는 노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 References

[1] K.Y. Kim, "A Delphi Research about Developing Lifelong Education for Learner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n Developmental Disabilities, Vol. 21, No. 3, pp. 1-18, 2017.  
[2] Y.J. Kim, and R.H. Kwon, "A Case Study on the Effect of the Extracurricular Program of Convergence Major in Lifelong Educ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Universities on

Restaurant Employment Skills of High School Students with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11, No. 7, pp. 136-144, 2021. <http://dx.doi.org/10.22156/CS4SM B.2021.11.07.136>  
[3] Y.J. Kim, and R.H. Kwon, "Organized the Scope of Professional Competency Performance of Lifelong Educators for the Disabled: Qualification Classification Convergence System Development of Coordinator and Professional Educator,"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12, No. 1, pp. 1123-1138, 2021.  
[4] Y.J. Kim, and M.A. Do, "Exploring the Convergence of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Academic System Boundaries at the Level of Imitation," The Journal of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6, No. 4, pp. 79-84, 2020.  
[5] Y.J. Kim, "The Convergence of Academic Speciality in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by Evidence-Based Practices of Special Education: A Viewpoint of Preparing General Lifelong Education," The Journal of Social Convergence Studies, Vol. 4, No. 4, pp. 75-89, 2020. <http://dx.doi.org/10.37181/JSCS.2020.4.4.075>  
[6] K.H. Jang, and Y.J. Kim, "The Development on Scholastic History of Support System for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Through the Perspective of 'Teacherization' of Lifelong Educators for the Disabled: The Practices of Convergence Among the Subjects of Education, Curriculum, Qualification, and Related Organizations,"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11, No. 5, pp. 455-470, 2020.  
[7] Y.J. Kim, and K.S. Kang, "A Convergence Dilemma of Lifelong Education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0, No. 3, pp. 81-91, 2019. <http://dx.doi.org/10.15207/JKCS.2019.10.3.081>  
[8] Y.J. Kim, and K.S. Kang, "Operation Plan of National Lifelong Education Promotion Center Commercialization to Revitalize a University-based Lifelong Education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Culture and Convergence, Vol. 40, No. 6, pp. 501-540, 2018.  
[9] Y.J. Kim, and J.Y. Kim, "A study on the Evidence-based Practices for Lifelong Education (Voc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8, No. 1, pp. 351-359, 2018. <http://dx.doi.org/10.35873/ajmahs.2018.8.1.036>
- [10]Y.J. Kim, "The Effects of Social Enterprise Referenced Vocational Education in Lifelong Education Center at University on Cooking Skills for Middle School Student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ASD),"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Vol. 25, No. 1, pp. 175-197, 2018. <http://dx.doi.org/10.34249/jse.2018.25.1.175>
- [11]Y.J. Kim, and Y.S. Jung, "A Study on the Practical Integration Model of Special Education, Rehabilitation, Lifelong Education : Directions to Foster Lifelong Educators for Disabled," *Journal of Curriculum Integration*, Vol. 25, No. 1, pp. 175-197, 2018. <http://dx.doi.org/10.34249/jse.2018.25.1.175>
- [12]Y.J. Kim, "A Curriculum to Improve the Cooperation Course of 「Fostering Lifelong Educators for Disabled」 in the Special Education Department of University," *Journal of Skills and Qualifications*, Vol. 7, No. 1, pp. 187-213, 2018.
- [13]W.H. Kim, and Y.W. Lee, "A Study on the Concept and Direction of Lifelong Education for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by Subject: Focused on the Six Major Area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0, No. 16, pp. 623-649, 2020. <http://dx.doi.org/10.22251/jlcci.2020.20.16.623>
- [14]Y.Y. Choi, and S.H. Lee, "A Study on Perception and Task of Lifelong Education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10, No. 4, pp. 133-139, 2020. <http://dx.doi.org/10.22156/CS4SMB.2020.10.04.133>
- [15]Y.J. Kim, "The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Promotes the Establishment of Career Customized Lifelong Education Major Courses: The Reality of the Lifelong Education Curriculum for the Disabled and the Revision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11, No. 4, pp. 191-206, 2020.
- [16]Y.J. Kim, "A Basic Study for Development of Curriculums for Training Vocational Coordinators for the Disabled Based on University-affiliated Lifelong Education Center," *Journal of Curriculum Integration*, Vol. 11, No. 3, pp. 19-42, 2017.
- [17]S.S. Kim, "A Study on the Special Education for Person with Disabilities of Aging Society," *The Journal of Future Education*, Vol. 9, No. 1, pp. 1-23, 2019.
- [18]Y.J. Kim, and R.H. Kwon, "A Case Study on the Effects of Online Lifelong Education at Home Using Contents of Lifelong Education Center Attached to the University on the Acquisition and Generalization of Cooking Task Skills of the Persons with Developmentally Disabilitie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11, No. 8, pp. 137-150, 2021. <http://dx.doi.org/10.22156/CS4SMB.2021.11.08.137>
- [19]Y.J. Kim, and R.H. Kwon, "The Effects of Online-based Lifelong Education Program through Key Words Card Production and Class Demonstration on Job Preparation Skills for Workplace of Worker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9, No. 9, pp. 241-255, 2021. <http://dx.doi.org/10.14400/JDC.2021.19.9.241>
- [20]Y.J. Kim, J.K. Park, and R.H. Kwon, "The Effects of Online Home Learning in Connection with Extracurricular Activities for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at University on Cafeterias Cooking Assistance Skills of Job Search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Vol. 9, No. 3, pp. 188-201, 2021.